

영암에 세계 바둑 메카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한다

군, 국·도비 258억 확보…내년 정부예산에 포함
우승희 군수 “바둑의 분향 넘어 세계 허브 도약”

영암군이 국·도비 258억원을 확보해 세계 바둑 메카로 자리매김할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의결한 2026년도 정부 본예산에 국제 바둑연수원을 포함한 1339억원 규모의 영암군 5개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입되는 국제 바둑연수원이 영암군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바둑을 매개로 한 영암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는 국제 바둑연수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
군은 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세계 수준의 바둑 복합 연구시설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바둑교육원, 국제대

국실, 인재교육관, 바둑기념관 등을 갖춘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체험·관광을 연계한 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등 4차 산업 맞춤형 바둑 훈련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바둑 인재 육성과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에는 100실의 숙박시설, 다목적 경기장 등 체류형 인프라도 포함돼 국내·외 바둑 관련 행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된다.
군은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

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그 당위성과 지역성, 전략성, 경제성 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영암이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자 ‘국수산맥 세계 프로 최강전’ 개최지라는 상징성과 정통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월출산국립공원, 영산강, 왕인박사유적지 등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바둑 관광 콘텐츠 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우승희 군수는 “국제 바둑연수원 국·도비 확보로 영암이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한국 바둑의 분향을 넘어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세계 바둑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빈집·유휴공간 도시재생 추진

19일까지 병영 일원서 ‘빈집재생 페어’ 개최

강진군이 빈집을 재생해 사람들이 다시 살고 마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병영면 한골목길 일원에서 ‘강진 빈집재생 페어’를 운영한다.
‘강진 빈집재생 페어’는 ‘다시 사는 집, 다시 살아나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버려진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강진군에 맞는 빈집재생 모델을 찾고자 기획됐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병영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빈집과 유휴공간 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정책홍보를 비롯해 로컬콘텐츠를 접목한 문화를 체험하고, 빈집 투어 등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재생시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빈집·도시재생 사업 등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을 알리는 ‘정책홍보관’ 운영,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빈집재생 모델을 찾는 ‘빈집재생 현장포럼’, 빈집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빈집 도슨트투어’, 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오지는오진다’ 채널 운영자가 직접 진행하는 ‘빈집 인플루언서 사담회’, 빈집을 리모델링한 공간을 활용



한 워크숍·작가 레지던스 등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앞서 개최된 ‘빈집재생 현장포럼’은 전남도 내 지자체 관계자·주민 8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으며, ‘빈집 도슨트투어’도 현재까지 70여명이 다녀가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빈집 워크숍은 서울 소재 스타트업과 연계해 추진됐고,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동화, 웹툰, 사진 등 분야별 작가들과 함께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한 작가들을 홍보하는 빈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강진 빈집재생 페어 빈집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경훈 웹툰작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을 알게 됐고, 단순히 빈집을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을을 알아가며 리프레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다시 꼭 강진을 찾아갈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병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원도군의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인 신지 명사십리 전경.

완도 신지 명사십리, ‘우수 해수욕장’ 선정

해양수산부 주관…안전 관리 강화·편의 시설 개선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4km에 달하는 고운 모래 해변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 ‘공기 비터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하고, 인근에는 해송림과 황토길도 있어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8

년 연속’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 ‘블루 플래그’를 받았다.
올해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와 편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신지 명사십리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비치 발리볼 대회와 해양치유 크로스

핏 대회, 전국 맨발 걷기 대회 등도 개최해 이용객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백사장과 야영장 등에 청소 관리 요원 상시 배치, 수질 검사 확대 실시, 식품 위생업소 점검 등에서 높이 평가 받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신지 명사십리를 해양치유의 중심지이자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해변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및 환경 유엔터와 연계해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비치 발리볼 대회와 해양치유 크로스

진도, 난방 사각지대 해소
철거 보일러 수리·무상 지원

진도군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 부족 해소를 위해 철거 보일러를 활용한 난방시설 보급에 나섰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거한 보일러를 정비해 난방시설이 필요한 취약 가구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임회면 봉상마을에서 진행한 엘피지(LPG) 배관망 구축 공사와 연계해 추진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철거한 기름보일러 중 사용기간이 짧고 상태가 양호한 보일러를 정비해 난방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가구에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군의 이번 지원은 난방비 격차가 큰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작은 지원이지만 난방이 꼭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등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재사용이 가능한 철거 보일러를 정비하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빚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렉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동행 지역상공인
광남일보 (사)광남신문(주)광주

-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격 시험 조건)
- 최대 58°C 고온 난방, 폭한도 거뜰하게
-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안정

온라인 견적 문의 | 캐리어코 더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몰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